

# 서울시 여성 취업현황과 고용 활성화 방안



이찬영<sup>1)</sup>  
삼성경제연구소  
[cylee@seri.org](mailto:cylee@seri.org)

## I. 회복세를 보이는 여성 노동시장

금융위기로 위축되었던 여성 노동시장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0~2007년 연평균 2.1% 증가하였던 여성취업자는 금융위기 발생 직후 감소하였다가 201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2011년 2/4분기에는 계절조정 여성취업자 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실례로, 한국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54.5%로 OECD 국가의 평균 64.8%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가시화됨에 따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최근 취업자 증가세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러한 추세가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2011) 등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취업자 증가 원인을 연령별, 산업별, 근로시간 별 등 다양한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선진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추론해 보고자 한다.

## II. 여성취업자 증가 원인

### 1. 연령별: 50대 여성취업자가 크게 증가

50대를 중심으로 중고령층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2010년부터 여성 노동시장이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금융위기 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었던 다른 연령대와 달리, 50대는 동 기간에도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여성 노동시장의 회복세를 주도하였다. 50대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에도 8만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는 연평균 12만개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70~90%를 차지하였다. 50대 인구가 2010년부터 연간 10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0대 여성취업자 증가는 매우 뚜렷하다.

〈표 1〉 연령대별 여성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2008년	2,051 (-45)	2,210 (-23)	2,669 (14)	1,714 (102)	1,123 (5)	9,874 (48)
2009년	1,978 (-73)	2,105 (-105)	2,658 (-11)	1,794 (80)	1,132 (9)	9,772 (-102)
2010년	1,946 (-32)	2,121 (16)	2,668 (10)	1,921 (127)	1,135 (3)	9,914 (142)
2011년	1,916 (-45)	2,104 (-5)	2,697 (47)	2,005 (120)	1,128 (49)	9,977 (169)

주: 1) 2011년은 상반기 기준  
 2) ( )는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감  
 3) 10대 여성취업자 추이는 생략

자료: 통계청, KOSIS.

## 2. 산업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확대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여성취업자가 증가하였다. 먼저, 2011년 상반기까지의 수출 급증으로 인해 제조업에서 이례적으로 여성취업자가 늘어났다. 이미 2010년에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19만 2,000개 증가하였는데 그 중 여성 일자리는 7만 7,000개였다. 또한 인구고령화 심화 및 IT산업에 기초한 서비스업의 발달은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2009년부터 매년 10만 개 이상 창출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일부 서비스업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모든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은 일부 서비스업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하는 ‘서비스업 내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정부의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9,874 (48)	9,772 (-102)	9,914 (142)	9,977 (169)
농림어업	783 (-29)	738 (-45)	683 (-55)	637 (3)
제조업	1,270 (-37)	1,160 (-110)	1,237 (77)	1,283 (75)
서비스업	7,628 (113)	7,694 (66)	7,816 (122)	7,889 (103)
도소매 및 음식숙박	3,063 (-30)	2,926 (-137)	2,882 (-44)	2,828 (-89)
교육	1,191 (29)	1,233 (42)	1,209 (-24)	1,129 (-113)
보건 및 사회복지	634 (92)	774 (140)	923 (149)	1,044 (175)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	406 (12)	407 (1)	439 (32)	479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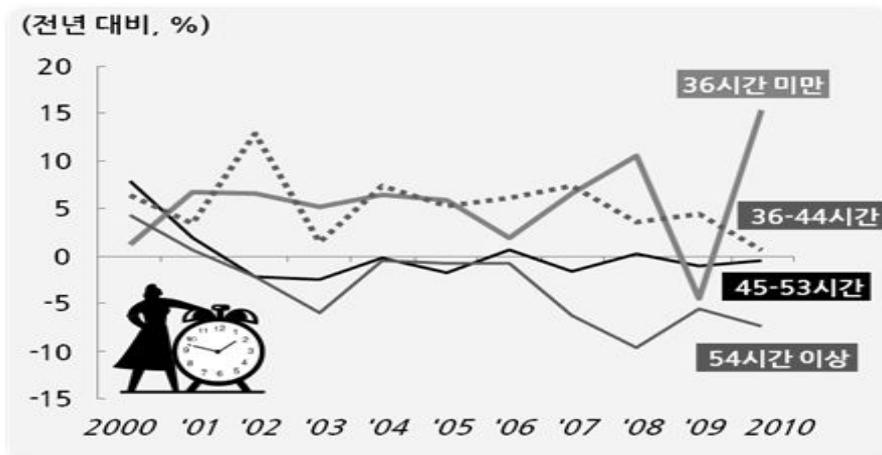
주: 1)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폭

2) 서비스업은 이외에도 운수·통신·금융,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 등을 포함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는 연령별 취업자 증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연령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영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연령대별 주종 산업의 흐름과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이 연동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30대는 상대적으로 고학력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업 부문을 선호하는 반면, 40~50대는 복지 서비스 부문 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교육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는 30대 취업자 감소로 이어졌고,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40~50대의 취업자 증가를 유발하였다.

### 3. 취업시간별: 단시간 근로 확산

최근의 일자리 증가는 단시간 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가 2010년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금융위기 발생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0년에 15.4% 증가한 반면, 다른 근로시간대의 취업자 수는 정체를 보이거나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취업시간별로 2010년 취업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36~44시간은 0.7% 증가, 45~53시간은 0.5% 감소, 54시간 이상은 7.4%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은 2009년 19.1%에서 2010년 21.8%로 2.7%p 증가하여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여성의 단시간 근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근로시간별 취업자 증감 추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근로시간대 전반에 걸쳐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36시간 미만 시간 대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전체 취업자 수가 정체되거나 감소하였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도 단시간 근로자는 증가하였다. 게다가, 취업증가세가 뚜렷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에서도 늘어난 일자리 중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영세업체 근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단시간 근로자가 주로 저임금-저숙련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표 3〉 산업별·근로시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09년(A)		2009년(B)		차이(=B-A)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전체	1,833	7,750	2,116	7,591	283	-159
농림어업	263	469	243	433	-21	-36
제조업	133	1,005	155	1,061	22	56
서비스업	1,410	6,126	1,685	5,952	276	-174
도소매 및 음식숙박	494	2,402	552	2,297	59	-105
교육	383	776	425	718	41	-58
보건 및 사회복지	100	660	168	736	68	76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	59	341	84	349	25	7

주: 취업자 중 일시휴직자는 근로시간별 구분에서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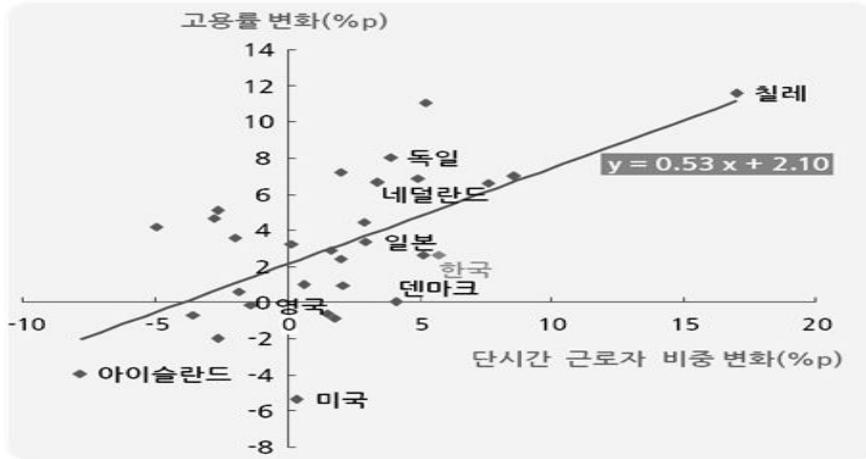
### Ⅲ. 시사점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여성취업자의 최근 증가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업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여성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우선, 서울시의 경우에는 여성의 고학력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30세 이상 인구 중 대학졸업이상 고학력 여성은 2000년 57.5만 명에서 2010년 112.4만 명으로 10년 새 95.4%나 증가했다. 게다가 서울시 여성 중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초고학력 여성도 2000년 5만 9,441명에서 2010년 15만 5,545명으로 10년 새 2.6배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 유연근로제 확대, 여성친화적 일자리 발굴 등이다.

먼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주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을 구현함과 동시에 양질의 노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30~40대의 젊은 고학력 여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마련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었다면, 이제는 보육시설이 직장 내 또는 여성 일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sup>1)</sup>

둘째, 유연근로제 확대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근무시간이나 근로형태가 유연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OECD 31개국을 대상으로, 2000~2010년 단시간 근로 취업자 비중 변화와 고용률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단시간 근로 취업자의 비중이 1%p 상승할 때, 고용률이 0.5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15.5%로 OECD국가 중 2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에게 매력적인 선택인 동시에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양면성을 보유한 만큼,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단시간 근로의 고용 안정과 적정임금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2009년 15세 이상 서울여성은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49.9%)을 꼽았다.



[그림 2] 단시간 근로자 비중 변화와 고용률 변화

마지막으로 실버서비스, 정보통신, 교육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산업을 육성해 여성 일자리 영역을 확대시켜야한다. 고령화 대응책 일환으로 실버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성장이 여성취업자 증가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향후에도 여성 일자리 창출력 제고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절실한 여성에게 재택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30~40대 고학력 여성이 선호하는 영역인 만큼, 방과 후 학교의 체계적 육성, 여성유망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교육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아동 성 교육 전문 강사, 청소년 셀프코칭 전문가, 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